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정*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 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라살아라네타 대학교는 필리핀의 말라본에 위치해 있는 대학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한 캠퍼스에 모여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녹색 계열의 학교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p>
수업	<p>수업은 월~금 동안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이루어진다. 나의 경우, 1교시인 오전 8시부터 중간에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4시 30분에 모든 수업이 끝났다. 8시간 중 맨투맨 시간은 필리핀 선생님과 내가 1:1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루에 3시간이다. writing, speaking1, speaking2 로 이루어진다. writing시간에는 과제로 해 온 에세이를 첨삭받으며 문법 및 영어 지문을 읽는다. speaking1 에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으며 speaking2 시간에는 발음과 단어를 공부한다.</p> <p>소그룹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에 2시간인데 이때는 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위주로 회화 실력을 키운다. 또한 공적인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p> <p>대그룹은 소그룹 2개가 합쳐져 총 10명이 수업을 듣는다. 하루에 3시간으로, 주로 토익을 준비하는 수업을 한다. 토익리스닝, 토익스피킹, 미디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익리스닝과 토익스피킹의 경우 실제 토익시험을 보는 것처럼 테스트를 본다. 멀티 미디어 수업에는 여러 매체를 통한 영상들을 보며 실용적인 영어를 배운다.</p> <p>매주 월요일에는 리스닝 시험과 단어시험, 금요일에는 writing과 스피킹 시험을 봤다.</p> <p>일주일에 2개씩 에세이를 작성하여 첨삭을 받은 후 매주 금요일에는 각 학교의 이름이 적힌 박스에 에세이 책을 낸다. 에세이의 주제는 writing 시간에 배운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나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에 에세이를 써서 첨삭을 받고 바로 책을 제출했다.</p>

Activity	<p>따가이따이, 팍상한 폭포, 민도르 섬에 가는 활동이 있었다. 나는 그것 중 민도르 섬만 가려고 한 달 내내 준비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그것마저 취소되어 난 필리핀에서 수영을 한 번도 못했다. 민도르 섬에 가기 위해 3500페소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따로 할 수상레저를 위해 3000페소를 더 남겨 놓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기념품 사는데에 쓰였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우리가 갔을 때는 한창 더운 여름은 지나고 우기가 찾아와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우산은 필수였으며 오히려 비가 오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였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햇빛이 굉장히 짹짹하고 습했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발라야 한다.</p>
안전	<p>처음에는 필리핀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으나 길거리에서 핸드폰과 지갑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가방을 꼭 붙잡고 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가는 필리핀 남자들이 자꾸만 말을 걸고 휘파람을 불어 불쾌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방은 굉장히 넓었으나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수업이 약해 변기물을 두 번 내려야 했다. 또한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손에서 쇠 냄새가 났다.</p> <p>호스텔에 씨카페가 있어서 참 좋았다. 10시가 통금인지라 나머지 시간에는 카페에서 다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다행이었으며 12시에는 씨카페에서 떠드는 것을 통제 해 조용히 잠에 들 수 있었다.</p> <p>만약 밤 열시 이후에 귀가한다면 반성문과 한 시간 추가 공부를 해야 했다.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한다면 한국의 대학교에 통보하였다. 또한 이성의 방에 출입을 하면 바로 한국으로 떠나야 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나는 아침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식당에서 아침을 챙겨 먹었다.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은 아니었지만 세끼를 다 한식을 먹을 수 있어 한국 음식이 그다지 그리지 않았다. 또한 미역국이 정말 맛있다.</p>

교통	<p>호스텔 바로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 분 안에 학교를 갈 수 있었다. 가까운 곳으로 가려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을 이용했으며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 GRAB이라는 필리핀 택시 어플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편히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필리핀의 교통체증은 말이 안 된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운전을 할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00,000	
달러 환전	171달러	
한국 돈 환전	10만원	
합계		거의 60만원을 소비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p>한국에서 미리 환전해 가는 돈 이외에 필리핀에서 비상시에 쓸 돈을 좀 더 챙겨가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돈 계산을 하지 않고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액티비티에 필요한 비용과 기념품을 살 때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쟁여 놓고 나머지 돈 안에서 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필리핀에 가기 전에 라면을 많이 챙겨가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라면들 뿐만 아니라 일본 라면까지 다양한 라면들이 호스텔 바로 옆 편의점과 가게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라살아라네타 대학의 옷 규정은 정말 철저하다. 한국에서 옷을 챙길 때 설마 정말 긴 바지를 입겠거니 하고 긴 바지를 조금 챙겨갔는데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을 땀 아예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옷 규정은 꼭 지켜야 한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어학연수 가기 일주일 전부터 설렘보단 걱정이 앞섰다. 공항에서 처음 보는 같은 대학교 사람들과 한 달 동안 낯선 나라에서 지내야 한다니 혹여나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오기에 그 걱정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걱정은 사치였다. 우린 그곳에서 거의 준준가족처럼 가까워졌고 공항에서 헤어질 땐 아쉬워 눈물을 흘렸다.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한국에서 해야 했던 많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떨칠 수 있어 좋았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있던 것처럼 그곳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다. 하루종일 영어에 관해서만 배우면서 처음에는 어지러웠으나 점점 여러 방면에서 늘어나는 나의 영어 실력을 느끼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영어로 농담을 하는 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뭐든 지 부모님, 선생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했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뿌듯했고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가면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 시간들이 없어질 것만 같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곳에 온 몇몇 사람들이 너무 애정에 목마른 사람인 것 같았다. 친목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도 있겠지만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필리핀 매직, 코리아 블랙 매직 등 이런 말들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은 다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가끔씩 불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다.

위의 점만 빼면 나의 첫 어학연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나는 내 주위사람들에게도 강력 추천을 하고 싶다. 내가 감춰왔던 나의 진짜 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나의 자존감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며 하필 2016년 여름에, 하필 이 학교들이 만나, 이런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처음 MOA에 간 날



마닐라 투어 중 리잘 파크



BGC와 BGC에~



스피킹 티저 엘레인과 졸업식 사진



맥아더에서 순천향 사람들과



빈익빈과 라살에서 마지막 사진